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르는 참석자들



이동원 목사가 수상하는 모습

이동원 목사, 사우스이스턴에서 총장 특별상 수상

모교를 빛낸 설교자, 목회자로 인정

한국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가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그의 모교인 사우스 이스턴침례신학교(Southeastern Baptist Seminary)에서 모교를 빛낸 설교자로 총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 목사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앞에서 설교했으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소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어 그는 모교를 빛낸 설교자와 목회자 자격으로 대니 애킨

총장으로부터 특별상(President Award)을 받았다. 애킨 총장은 "학교 역사상 교회 부흥, 강해설교, 리더십의 모델인 동문 지도자를 명예롭게 인정하는 뜻깊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 목사에게 자신이 쓴 다니엘 주석서를 선물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날을 기념해 전교생에게 특별 오찬을 제공했으며 이 목사와 학생들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한인목사회 전 회장 김영구 목사의 기도, 세기총 후원이사 이옥미 목사의 성경봉독, 한기홍 목사의 설교, 미기총 증경회장 한기형 목사, 세기총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 세기총 공동회장 심평중 목사의 중보기도, OC교회 전 이사장 김기동 목사의 헌금 기도,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미기총 증경회장 최낙산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미기총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의 인도, 세기총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기도, 세기총 법인이 사 하효련 목사의 성경봉독, 황의춘

목사의 설교, 세기총 공동회장 민승기 목사, 세기총 상임회장 유영식 목사, 멕시코 정득수 선교사의 중보기도, OC교회 전 회장 이우호 목사의 헌금기도, 세기총 미주지회장 이재덕 목사의 광고, 미기총 증경회장 송정명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신광수 사무총장에 따르면 세기총은 12월 11-13일 유럽기독교총연합회 창립총회 및 기도회,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 미국 하와이, 미얀마 양곤, 일본 도쿄 등에서 잇따라 기도회를 개최하며 이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기의 한반도 위해...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세기총 · 미기총 주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동북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위해 전 세계의 한인 교회들이 뜻을 모아 기도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LA 구국기도회'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이하 세기총) 주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경일 목사, 이하 미기총) 주관으로 1-2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것.

이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을 위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첫날 "한반도의 운명"(삼하 6: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홍 목사(미기총 증경회장, 은혜한인교회 담임)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끊임 없이 고조시키고 있는데, 우리 조국은 정쟁으로 분열 양상만 보이고 있

는 악순환"이라며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회를 리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목사는 "에스터가 모르드개를 통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며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이 위급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교계나 정계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주 대립하고 그로 인해 많은 힘을 소모하지 말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화합하고 하나되고 단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강히 잘 세우고 통일도 하루속히 이룩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스스로가 불편하더라도 부조리하고 지탄받을 만한 것들은 먼저 과감히 제거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회복이 일어나야겠다"고 했다.

둘째 날 "하나되게 하소서"(요 17:21-2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황의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뉴저지 트렌튼장로교회 담임)는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평화통일이 되기 전에 적화통일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황 목사는 특히 "평화는 국방을 든든히 하고 일상각각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주의나 인권이나 평화 등의 포장에 속지 말고, 이 시대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말씀으로 통해 분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이 깨어나야 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며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디아스포라였다. 우리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도회는 첫날 세기총 미주지회장 이재덕 목사의 인도, 남가주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제51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 · 취임 감사예배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 목회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51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목사
이임회장



샘신 목사
신임회장

- 일시** 2017년 12월 10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미주평안교회 (담임 임승진 목사시무)
- 주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문의** 총무 양경선 목사 (213)255-1725



남가주 한인 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고창현 목사 부임 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총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

“예배에 목숨 걸고 복음 전했을 뿐인데”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 인터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란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상처 입은 이민자들이 모이는 한인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때로는 씻기 힘든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최근 10년간 겪은 일은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일어난 일을 통해 미래를 말할 뿐이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 한 것뿐인데 성도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선교에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9년간 이동원 목사 설교 통역, 찬양, 장년 교구, 젊은이 사역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고창현 목사가 2016년 첫날 부임했을 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랐던 것은 “이런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성도들의 절박함이었다. 한인 교회는 물론, 미국 교단과 심지어 한국에까지 유명했던 이 교회로 고 목사가 부임한다고 할 때 이동원 목사가 말했다.

“고 목사, 예배에 목숨을 걸어. 은혜 받으면 성도는 변화돼.”

엄밀한 의미에서 고 목사는 이민자는 아니었다.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온 조기 유학생 출신이다. 그 지역 한인교회에서 그의 성악적 재능을 ‘알아본’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스트만 음대에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 그러나 주님은 음대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를 빚어가시며 좀 다른 길을 열어가셨다. 바로 목

회였다. 그가 처음 간 신학교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풀게이트 로체스터 신학교였다. 당시 신앙생활 하던 교회 목사로부터 “복음적인 교회 토양에서 자랐으니 진보적인 신학을 배워 보는 것도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섬기기 위해 가까운 신학교를 택한 것이었다.

1990년대 말인데도 이미 동성애자들이 그 학교에 많았으며 다원주의적 신학이 지배적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야 했다. 대신 보수적인 교회가 왜 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반성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프린스턴신학교를 거쳐 복음주의 신학교의 대명사인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졸업했다. 진보의 끝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오니 복음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민교회에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조기 유학생이던 자신이 자란 곳이며, 도움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할 때도 ‘주님이 부르신다면’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청빙이 온 것이다. 아내와 상의하고 곧장 짐을 싣다. 교회가 내건 조건은 2년 단임이었다. 2년 뒤에는 다시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민교회에 진

빛을 갠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1년여 만인 2017년 2월에 영구직 목사로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5년 재신임’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는 “모든 교회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예배와 함께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한 의미로 다가온다. 서로 싸우는 데에 사용하던 힘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사용하니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제야 아픔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형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너그러워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김준형 기자



고창현 목사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총회 열려 신임회장에 안병권 목사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한인소망교회 담임) 2017년 연말 총회가 지난 3일 퓌러힐즈 에스테이트 소재 한인소망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총회로 열렸다.

안병권 목사(총무, 가나교회 담임)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윤목 목사는 “가장 늦게 온 자가 받은 큰 은혜”(마20:6-7)란 제목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함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의 일꾼인 우리 목사들이 모여 친구로서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며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일일 것이다. 주님의 포도원인 사우스베이를 더욱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말씀선포 후에 찬송 304장, 안병권 목사의 광고, 그리고 최학량 목

사(새창조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 총회로 이어졌다.

2부 총회에서는 윤목 목사의 사회로 재정보고 및 결산, 회장 인수연계가 이어졌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의 회칙이 정한 대로 2017년 총무였던 안병권 목사가 2018년 회장직을 승계했다.

안병권 목사는 회장 인사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의 교회들도 서로 손을 맞잡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사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총회 후에는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준비한 경품 추첨과 윗날이를 통한 해동안 목회에 정진한 목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우스베이목사회는 매달 첫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오전 8시에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310-986-9797
기사: 사우스베이목사회 제공

목회와 심리학 통합된 저작물 시상

풀러신학교 내의 STAR 연구소 (Office for Science, Theology, and Religion Initiatives)에서 목회와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수한 심리학 저작물을 발굴해 시상한다.

2013년에서 2018년 전문학술지나 일반간행물에 게재된 글 가운데 목회와 사역, 심리학 등의 각 분야가 학문적, 실용적으로 잘 통합된 글이 선정 대상이다. 저자 본인이 응모할 수도 있고 타인이 추천할 수도 있다.

STAR 연구소 측은 목회 및 사역

과 심리학의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상과 관련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다. 1등은 1천 달러, 2등은 7백 달러, 3등은 5백 달러를 지급하며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각 언어별로 응모가 가능하다. 2018년 1월 15일까지 응모를 받으며 2월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 방법은 저작물의 원고 또는 인터넷 주소를 이메일 psychserving@fuller.edu로 보내면 된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2017 행복나눔축제

Sharing Happiness Festival

12.17 | 주일 오전 11시
장소 남가주 벤틀교회

BETHEL CHURCH
남가주벤틀교회

초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모든 것에는 마무리가 있다는 어느 지혜자의 말처럼 이제 올 한해도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를 위해 정성껏 행복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올해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고 큰 감동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시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bethelchurchca@gmail.com



효사랑선교회의 그린필드 성경대학 졸업생들



교계 지도자들이 이기철 총영사 송별 만찬회를 열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받은 최고의 졸업장

효사랑선교회 그린필드 성경대학 졸업식 거행

성경적 효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을 하는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최근 특별한 졸업식을 했다. 바로 그린필드 성경대학 졸업식이다.

양로병원에 있는 시니어들에게 성경을 파워포인트로 편집하여 보고 읽고 그림으로 설명하며 가르치는 이 성경대학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총 50명 가운데 21명이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최근 졸

업하게 된 것이다.

박용일 목사의 사회로 개회사와 미국과 한국 국기에 대한 경례, 주창국 장로(효사랑선교회 이사장)의 개회 기도로 시작한 졸업식은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 설교로 이어졌다.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성경대학을 소개하고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어 거주 65지구 하원의원 보좌관인 박동우 보좌관이 졸업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

고 축하했으며 병원장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학생 대표로 권화순 학생이 답사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몰랐는데 이 성경대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믿음을 바르게 갖게 됐다. 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이 졸업식은 민승기 목사(갈보리 새생명교회)의 축사, 남승우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총영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1년 8개월 만에 임지를 떠나는 이기철 LA 총영사 부부를 환송하는 만찬을 열었다. 지난 12월 2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교계 지도자들은 이 총영사를 격려하고 축복했다.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박성규 목사는 “총영사가 떠날 때 이렇게 섬섬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 총영사님이 동포들을 위해 진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 동포 사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기도하고 최문환 장로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웨스트힐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해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12월 3일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33년간 섬긴 김인식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오명찬 목사가 새 담임에 취임했다.



오명찬 담임목사(오른쪽)가 김인식 원로목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1부 예배, 2부 원로목사 추대식, 3부 담임목사 취임식으로 행사가 거행됐다. 김인식 목사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을 역임하고 그동안 교계 연합활동에 헌신한 만큼 교단 및 교계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다수 참여해 식순을 맡았다.

미션대학교 송정명 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교단 총회와 총회신학교에서 공로패를 김 목사에게 전달했다. 오명찬 담임목사 취임식에서도 노회장 강준수 목사가 취임을 선포했으며, 전 총회장 황천영 목사가 권면을 전하고 전 노회장 고두선 목사

가 축도했다.

김인식 목사는 은퇴 후, 김담선교회와 이스라엘 사역에 매진할 예정이며 오명찬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으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겠다”고 밝혔다.



LA동부교협 주최 찬양제가 8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동부교협 주최 성탄찬양제 열려

12월 3일 주일 오후 5시 유니온교회에서 LA 동부지역 8개 한인교회 찬양대와 성도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교협 성탄 찬양제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김신일 목사)가 교회 연합과 친목을 위해 매년 성탄절을 즈음해 열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찬양제가 시작돼 글로벌선교회, 엠마오장로교회, 나성한미교회, 선한목자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선한침지기교회, 아름다운교회, 유니온교회 등이 찬양을 불렀다. 각 교회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번 찬양제는 송병주 목사(선한침지기교회)의 기도로 시작돼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찬양 후에는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가 헌금기도하고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가 광고한 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축도함으로 행사를 마쳤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4>

터키 안디옥 난민교회 지도자 연합 수양회를 다녀와서 (3)

지난 호에 말한 PIT(Partners in Turkey) 연합은 각 지역에서 자기 사역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감당하던 터키 장기 선교사들이 2007년부터 시작한 터키 연합중보기도회에서 이루어진 열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터키의 김진영 선교사와 현지의 동역 선교사들 몇 가정이 모여 터키 연합중보기도회를 기획했다. 그때 미주에서 그 기도회를 위해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세운 것이 '실크웨이브미션'이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터키와 투르크 그리고 중동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회자는 모임이 선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분의 선교사님들이 실크웨이브미션과 공동으로 난민 선교 및 교회 개척 지원 사역 등을 목표로 더욱 원활한 동역을 하고자 결성한 터키 선교사 모임이 PIT이다.

실크웨이브미션은 한국과 미국 연합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슬람권 나라에 교회 개척을 희망하는 교회들을 찾아 교회의 단기선교 및 교회 개척 계획을 돕고 현장 선교 전문가들인 PIT 선교사님들과 연결시켜 드려 아름다운 종족 입양 및 교회 개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에 국한되어 있던 이슬람권 교회 개척 지원 운동이 이제 국경을 넘어 이집트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까지 확장되고 있어 하나님의 이슬람권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느끼며 순종하고 있다. 이슬람권 선교를 계획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주저 말고 실크웨이브미션(www.silkwavemission.com)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실크웨이브미션 한미 연합 운영이사회를 마치고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조직 (I)

지금까지 일제 35년간 한국교회가 일제와 투쟁한 내력을 소개했다. 이번 회부터는 한국 교회의 조직과 일제로부터 받은 수난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게 진행됐다. 특히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교회의 성장을 빠르게 증진시켰다. 일찍이 언더우드는 자기 집에서 고아들을 모아 교육시키면서 앞으로 신학교를 세울 뜻을 세웠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신학교는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시작됐다.

1901년 평양에서 사역하던 마펫(S. A. Moffett, 馬布三悅)은 자기 집 사랑방에서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였던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은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리(G. Lee)와 함께 신학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효시다. 평양 장로회선교부는 6인의 신학교육위원을 두어 '신학반'(theological class)를 지도하게 했고, 1902년에 신학교육은 5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1903년에는 조사(助事, Helpers) 양성을 위한 특별 과정을 둘 것을 채택했다. 1904년에 위원회는 다른 선교부에 신학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지원을 요청하여, 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남장로교회의 전킨(W. M. Junkin), 캐나다 장로교회의 푸트(W. R. Foote) 등이 평양을 오르내리며 교수하기 시작했다. 평양에 거주하는 선교사들 중 베어드(W. M. Baird), 스왈튼(W. L. Swallen), 번하이셀(C. F. Bernheisel), 블레어(W. N. Blair), 웰즈(J. H. Wells) 등이 출강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최초의 한국인 교수 남궁혁(南宮赫)과 박형룡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신학반이 시작된 이듬해인 1902년에는 신학생들이 6명으로 늘어났고 1904년에는 19명, 그리고 1905년에는 3학급이 되면서 학생 수가 40명으로 늘어났다. 1년에 3개월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9개월은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숙제를 하고 자습하는 방법으로 5년간 학업을 진행했다. 신학교는 차차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1905년에는 8명의 3학년 과정과 14명의 1학년 과정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19,000명, 전체 교인 70,000명을 둔 교회로 당당하게 출발했다.

한국에 나와 선교하던 감리교회는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각각 교단을 형성하여 두 개의 감리교회로 나뉘어 활동하다 1930년에 이르러 남북이 합동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미국 남·북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장로교회까지 모두 합해 하나의 장로교회를 형성한 것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회는 이 교회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고백 즉 신조를 채택했다. 그것은 인도 자유교회가 1904년에 창립하면서 채택한 12신조를 받아들여 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것이 앞으로 아시아 각국 장로교회의 신경이 되어 각 교회가 서로 연락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다 했다. 이 점에 관해 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브라운(G. T. Brown)은 1962년에 '한국 교회가 인도 교회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서방의 선교회와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형제 교단과도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선교 받은 지 20년, 복음과 접한 지 반세기가 지나, 새로 형성되는 노회에서 우리의 말과 정서가 깃든 우리의 신앙고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선교사 주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의 한 계로 해석할 일이 아닐 수 없다.

12신조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 입장을 따르는 신조로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죄의 대가, 성령의 아버지과 아들로부터의 나오심, 예정론, 불가항력적 은사, 성례전의 신앙, 육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신조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신조로 흠이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리가 폐쇄적이어서 다양한 신학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신학 사조가 들어올 때 그 분파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었다. 다시 말해 정통 장로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신학이 도래될 때 필연적으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의미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축 Ph.D. in Contextual Studies 인가 취득

ABHE는 2017년 11월 16일부로 상기 학위 과정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2018년 봄학기 신 /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학석사 (M.A.C.C.P.)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오프라인 개강일

2018년
1월 29일 (월)

온라인개강일

2018년
2월 5일 (월)

토요전일 수업

2018년
2월 3일 (토)

ESL 개강일

2018년
1월 8일 (월)

www.ptsa.edu 1-20 발령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명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나부터 달라져야

에베소서 4:17-3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되어지면서부터 옛세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또 땅과 바다 속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깨닫고 보면 우주 전체에 있는 만물과 또 지상과 수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한 부분을 우리들 속에 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이 파생되어져서 피조물이 된 인간들이 그 영으로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시기 때문에 그 영들을 하늘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육전년 역사를 기억하며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명심, 자기명예를 위하여 또는 자기허욕과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집착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영적가치를 망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가치 기준이 일치한 겁니다.

이전에는 영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그저 속물근성만으로 살아왔기도 합니다. 속물근성이라는 것은 물질에 예속되어 있다는 뿌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러시아를 통해서 불세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시작할 때 유물사관을 내세웠습니다. 유물사관은 오로지 물질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뿌리를 세상에 더 뺨으려고 물질기대와 허욕에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 보자고 하는 것은 천국소망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게 내버려 두실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한 만큼 세상 것으로부터 엄청난 환난과 고통, 시련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유희불로 심판하실 때에 천둥 번개 소리가 나더라도 너는 절대로 뒤돌아 보지 말고 소알 평지로 갈 때에 앞만 보고 가라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당부했었고, 그 당부를 받고 이제 소알 평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서 번개 불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와 천지 개벽하는 소리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에 두

고 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간절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그 즉시 선 채로 소금 기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기대 심리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란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보람도 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을 위하여 헛수고 하지 말라, 그렇게 허망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집중하는 인생은 18절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각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무익하고 비천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적으로나 또 결과적으로 윤리적 도의적으로 내가 해서 안될 짓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도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이 길바닥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 주어도 길바닥은 그것이 새퐁인지 금덩어리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에 아무리 생명의 보배로운 진리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임(放任)이라는 것은 방탕에다 자기를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받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심을 받았다고 하면 22절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

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거듭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령이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집중적인 역사를 하실 때에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 속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피동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주의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교회적 사명에 앞장 서게 되고 목자의 목회에도 적극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정성으로 손발 잘 맞추어서 협력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25절부터의 말씀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저질스럽고 속되고 악한 말은 절대로 안 써야 합니다. 상스럽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한 생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 끼치는 말로 덕을 세우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언어습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보증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다 보시고 지키시고 듣고 계십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생활 현장에서 확실히 인격 수양과

언어 예절과 행동목표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섬길려는 의도로 일치하는 처신이 되어진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근심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남 잘하는 것 훼방하고 모든 악한 의도까지 함께 다 버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상호간에 인자하게 하라는 말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른팔로 쓰실 사람을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고 죽이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악을 쓰고 훼방해 올 수 밖에 없기에 대적과 행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애타계 자존심을 다 버려 가면서 속마음을 다 비우고 전도를 하려고 여러 해 집중적으로 엄청난 투자하고 애를 썼는데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집중적인 조명과 계시로 역사하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심으로 나같은 죄인 살리심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도 상호 간에도 먼저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일일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가치관을 일치시켜서 이 영적 가치 제일주의를 지켜서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과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뤄 드리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믿어 주십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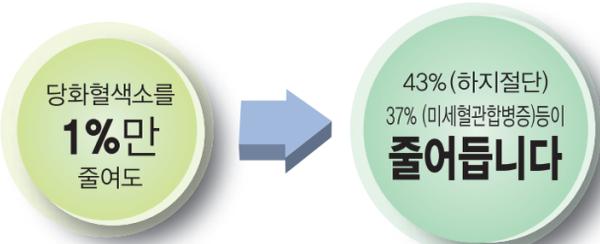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상태입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뉴욕목사회 신구임원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목사회, 문석호 회장 당선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가 11월 27일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신임 부회장에 박태규 목사(새침장로교회)를 선출했다.

올해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는 모두 단독출마로 이날 회원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할 것을 결의해 신임회장과 신임 부회장은 모두 투표과정 없이 박수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임 회장 문석호牧사는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면서 "올해 뉴욕목사회는 (문제되는) 기사거리가 없는 뉴욕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날 문석호牧사는 당선 직후 목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욕목사회의 운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지를 나눠주

는 등 뉴욕목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석호牧사는 "뉴욕목사회에 바라는 회원들의 바람을 진솔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감사는 올 회기 감사였던 김재호 목사, 김연규 목사, 하정민 목사가 모두 연임됐다. 그러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정보고가 누락돼 논란이 됐다. 이에 목사회는 김명옥 목사, 유상열 목사, 김재권 목사 3인을 특별감사를 뽑아 재정감사를 다시 하도록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원으로 황태현 목사, 정기태 목사, 김희숙 목사, 장숙자 목사 등 4명이 가입됐다.

뉴욕목사회는 부회장과 부서기, 체육분과로 각각 수고했던 문석호 목사, 김주동 목사, 이창남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김성구 신임 회장 선출

2018년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를 이끌 신임 회장에 김성구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28일(화) 오전 11시, 빛과소금교회에서 열린 교협 정기총회에서 지난 1년간 부회장으로 수고해 온 김성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김성구 신임 회장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 기존 교회들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회원교회 가입을 위해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상철 직전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함께 교협을 위해 노력한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장로들이 각 교회를 탐방해 격려하며 헌금과 함께 예배 드린 것이 특별했다"고 전하고 "성공적인 복음화 대회를 치르고 2세들을 위한 청년집회를 후원하고 진행했던 것도 감사하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한편, 2019년 부회장은 교단별 순서에 따라 미국장로교회(PCUSA) 교단 순서이며 내년 1월 사업총회 전에 확정해 인준받기로 했다. 윤수영 기자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 제2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조지아주침례교회협 권석균 회장 선출

조지아주한인침례교회협의회(회장 유대준 목사) 신임 회장에 권석균 목사(애틀랜타지구총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14일(화) 한비전교회(이오섭 목사)에서 열린 28차 정기총회에서 권 목사는 단독으로 추천돼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회장으로는 이종만 목사(여거스타한인교회), 총무로는 나기수 목사(참아름다운교회)가 선출됐다.

회계와 서기는 신임원진에서 임명하기로 결정됐으며 감사에는 이강수 목사

(임마누엘한인), 김성구 목사(빛과소금)가 선출됐다.

권석균 신임 회장은 "한 번 회장을 한 적이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섬기도록 하겠다. 많은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신안건토의로는 매년 진행되는 사모수양회의 정례화, 2세 사역에의 관심, 헌법과 규약 준수, 행사보다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 기도할 것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비질중학교 / 토요일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세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7 Rampart Blvd 교로복음교회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 - 오후 1:0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오영미어 화 오전 11:00 - 오후 8: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T.(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세안만민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리듬교양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듬예배(일연예배) (쇼배역)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람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과회 오전 10:00 - 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iet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금)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성가대예배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30

은혜로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Fax.310)787-7786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 되어 3300 세계복음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LA에베레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찬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Firado St., Northridge, CA 91326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인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화-토)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ingivingchurch.com




예배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 일어나길

한기총, 개최 두 달여 앞두고 성공기원 예배 드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주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기원예배가 29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 주관은 한기총 스포츠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한국기독교인문재단이 주관했다.

김진욱 목사(한기총 스포츠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엄기호 목사의 환영사, 한은수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총재)의 대표기도, 강영선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총재)의 설교, 임원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송용필(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성공기원 메시지, 축사 및 격려사, 특별기도, 최성규 목사(한기총 중경 대표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올림픽의 기원과 그 효과’(담후 2:5~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강영선 목사는 “동방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며 “올림픽은 한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세계적 문화 교류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 목사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올림픽이 복음화의 기회라는 점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다.

임원순 목사는 성공기원 메시지를 통해 “스포츠 선교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다. 야구와 농구 등 많은 스포츠가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듯이 이번 올림픽에서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송용필 목사는 “오늘 우리만 여기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단체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건국된지

70년이 되는 해다.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김갑수 중무실장(문화체육관광부)·최문순 도지사(강원도)가 축사하고, 서석근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대회설명을 한 후, 문세광(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이강평(전 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컸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을 만나니 안심이 된다”며 “올림픽이 이제 72일 남았다.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준비는 아주 잘 되어 있다. 경기장도 모두 다 지었고 최첨단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눈이 와 주어야 하는 문제, 돌발사고의 방지 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선 엄정목(한기총 공동회장)·조장환(평창군기독교연합회 회장)·박수병(인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오성균(대전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황덕광(한기총 공동회장) 목사의 인도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100여 참가국가 및 세계선교, 대한민국 선수들의 국위선양과 복음신앙의 부흥, 스포츠 선교단체의 연합과 사역의 부흥,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예배의 실무를 담당한 이주대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국가적 행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행사”라며 “기독교인들이 그 평화적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국가대표 지도자인 흥덕호 전 도사가 선수단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중하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의 성공기원문 낭독과 애국가 제창, 광고 및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으로 변경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으로 바꿨다.

한교연은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3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으로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한기연은 당초 한교연이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와 통합할 경우 쓰기로 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현재 통합은 무산된 상황.

실행위원 황인찬 목사는 “한교연은 이미 지난 7월 27일 제6-2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본회의 명칭을 한기연으로 변경하고 교단장회의측과 통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교단장회의측에서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이미 결의된 사항을 반복하기보다 한국교회 전체의 통합을 바라는 본회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뜻에서 지난 6회기 동안 써온 한교연이라는 명칭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했다. 또 오는 12월 6일 열린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순연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상 고려(총회장 김길근 목사)를 새 회원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 회원은 39개 교단으로 늘었다.

한편, 회의 말미에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본회의와 통합을 합의해 한기연 창립총회까지 개최한 교단장회의측이 지난 11월 17일부터 그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본인의 동도 없이 4인 공동대표 이름으로 지상에 총회를 공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김진영 기자



디즈니 채널 방송화면 캡처

동성 키스 내보낸 디즈니 채널 이번엔 남자 공주

미국가정협회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경고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내보내 논란을 일으켰던 디즈니XD 채널이 이번에는 남자 공주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타 vs 포시소스 브이블”(Star vs. The Forces of Evil)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캐릭터 마르코 디아즈는 터디나라는 이름의 공주로 변장한다.

극중 마르코는 헤이너스 부인이 그의 안팎을 살피다가 셔츠를 잡아당겨 가슴의 털이 드러나자 학생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다. 그러자 다른 공주들이 마르코의 편을 들었다.

한 공주는 “가슴털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 공주도 털이 있을 수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또 다른 공주가 “그가 소년이면 어때?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소리질렀다. 다른 이들은 “터디나는 정상이다. 그가 원한다면 그도 공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동성에 성향을 지닌 허핑턴포스트는 “이는 매우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또 ‘소년이나 소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적으로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월 디즈니XD 채널은 동성커플의 키스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미국가정협회 등 단체들은 디즈니의 동성애 캐릭터들이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가정협회 에드 비타글리아노 부회장은 “아이들을 언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노출시킬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디즈니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아이들

이 게이나 레즈비언의 존재를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부모가 그들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디즈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디즈니사는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앤디 맥’ 쇼에 게이 주인공을 등장시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기도 했다. 시즌 초반, 사이러스라는 이름의 중학생 소년은 조나라는 남자 친구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인 그는 여자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미국 리버밸리 교회(River Valley Church)에서 가정 사역을 맡고 있는 저스틴 스미스(Justyn Smith) 목사는 “엔터테인먼트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디즈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전례없이 발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신념과 확신을 형성하는 데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허용했다면, 좋은 토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언론에서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일은 점점 더 흔해질 것이다. 이 현실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토론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코덱스 아미아티누스 성경. ©메디체아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어 성경 영국에서 전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어 성경이 영국으로 돌아왔다.

코덱스 아미아티누스라는 이름의 이 성경은 716년 영국 노섬브리아 웨어마우스-재로우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기록한 초대 라틴어 성경으로 앵글로 색슨 세계의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성 베데(St. Bede)가 이 작업에 참여하고, 체올프리도 수도원장이 감수했다.

이 성경 필사본은 3개가 존재하며, 역사적이고 영향력있는 라틴 불가테 성경의 완성된 사본이다. 이 라틴 성경은 1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과 논쟁을 형성해 왔다.

이 성경의 무게는 약 75파운드(34kg) 이상이며, 교황 그레고리 2세를 위한 선물로서 로마에 보내졌다. 이후 투스카니 도서관과 플로렌티 도서관에 보존돼 있

었다. 그러나 최근 플로렌티 도서관은 코덱스 사본을 2018년 ‘2018 앵글로 색슨 왕국 전시회’를 위해 영국 도서관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 문서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를 넘어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영국 도서관의 전시 큐레이터인 클레어 브리아리는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라틴어 완성본의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다. 1302년 당시의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전시해서 보여줄 수는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며 “내가 이 성경을 한 번 보았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성경에 대해 읽고 사진으로 봤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놀랍고 믿을 수 없고,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양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지 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베헤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알본아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예)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V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Youth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는 세계선교를 미리꾸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cg.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5일 \$290 - 모든 세금 포함 (항만세/부두세/정부세 등)
- 기항지 선택관광 및 일체 팁 별도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탈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낙엽에게 배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노래하듯, 가벼운 몸짓으로 나무에서 내려오는 낙엽을 노래하는 시인들을 만납니다. 왜 시인들은 낙엽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낙엽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물들인 단풍과 나무에서 내려올 줄 아는 낙엽을 통해 성숙을 배웁니다. 조숙하게 성장하는 푸른 잎과는 다르게, 붉게 물들인 단풍은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단풍은 한순간에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단풍은 서서히 물듭니다. 성숙이란 서서히 무르익는 과실 같습니다. 푸른 사과가 붉은 빛을 발하는 붉은 사과로 무르익을 때 우리는 균형을 삼키게 됩니다.

단풍이 성숙(成熟)을 가르쳐 준다면 낙엽은 원숙(圓熟)을 가르쳐 줍니다. 성숙과 원숙을 구분하는 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숙이 무르익음이라면 원숙은 더욱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풍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온전히 무르익게 만든 것이라면 낙엽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를 아는 원숙함의 경지입니다. 단풍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노력합니다. 각양 색깔로 어우러진 단풍을 보면 누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엽은 다릅니다. 낙엽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낙엽이란 존재에 눈길을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낙엽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우리에게

게 원숙함의 경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낙엽은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무게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게 잡는 사람의 특징은 내려 올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은 너무 무겁게 여기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주의 중심에 자신들의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영역을 침범 당했다고 생각되면 분노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낙엽은 자신을 가볍게 여길 줄 압니다. 낙엽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물들인 후에, 때가 되면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 내려 올 줄 압니다. 낙엽처럼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김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빌 2:7).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무겁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막 10:45). 자신을 가볍게 만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체스터턴은 그의 책 《정통》에서 “위대한 성자들의 특징은 가벼워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천사들이 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64쪽)라고 말했습니다. 낙엽은 나무에서 내려 올 때 천사처럼 가볍게 내려옵니다. 내려 온 후에는 겨울바람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낙엽은 부는 바람을 따라 어느 땅에 떨어진 후에,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땅에 썩어집니다. 낙엽은 어느 날 그 땅에서 썩어 나무들을 위한 거름이 될 것을 압니다. 원숙함은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낙엽처럼 밟힐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낙엽이 썩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거름이 되어 봄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낙엽을 통해 인생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류응렬 목사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교수

1985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Paul Knitter의 <No Other Name?>이란 책이다. 1987년 한국어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제목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물음표 때문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란 말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이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의미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도 구원을 주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없는 구원과 십자가 없는 복음이다. 예수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 한다. 종교다원주의를 한 마디로 말하면, 너도 옳다, 그러나 나도 옳다 주이다. 예수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는 말이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기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설교에서 외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해석이나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왜 꼭 예수라야만 하는가? 왜 굳이 다른 종교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자기만 옳다는 배타적 자세라는 것이 21세기 과학시대에 나홀로 진리라는 주장이 맞지 않는 사고 아닌 가?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사탄의 최고 전략은 우리 눈에서 예수를 가리는 것이다. 사탄의 공격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이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무너지는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지 않는

를 뿌리치고 공의회에 참석한 후에 감옥에 들어간다. 교황 비판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목숨을 보장받는다든 회유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진리를 외친 사람. 결국 1415년 7월 6일, 화형으로 세상을 떠난다.

세상 눈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필요가 있었는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묻기도 한다. 누가 진짜 바보인지 한번 물어보라. 잠시 살아갈 인생에 예수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보인가? 적당하게 몇 년, 몇 십년 더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올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보 같은 인생인가?

오직 예수를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시대. 너무나 간단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만 구원이라고 외침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지. 예수가 정말 유일한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마다 선교사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7가지 묻고자 한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1.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군가?
2.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군가?
3.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누군가?
4.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
5. 신자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 할 이름이 누군가?
6.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주님이 누군가?
7.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세상 떠나는 날, 우리를 품 안에 앉아 줄 분이 누군가?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를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개인적·국가적 고난과 위기 속의 ‘다니엘들’에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삶으로 재현하는 하나님의 신비

이 책은 탄탄하고 명징하다. 1백 쪽 남짓의 작은 분량임에도, 모호한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명료하게 풀어낸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1-6장이며 그 안에는 6개의 ‘궁정 이야기(court tale)’로 이뤄져 있다. 두 번째 부분은 7-12장까지다. 이곳은 일인칭 환상들로 채워져 있다. 전반부가 개관적 서술이라면 후반부는 다니엘에 체험한 개인적 환상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담긴 신비의 요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과 씨름하는 데 놓여 있다는 것(112쪽)’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의 메시지는 ‘신비’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서론에서 저자는 다니엘이 처한 ‘큰 국가적 위기(10쪽)’ 속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일깨워 준다(10쪽)’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살아가는 수많은 ‘다니엘들’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다니엘들에게 다니엘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신비’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저자는 이민자이며, 동시에 포로적 정황에 맞닿아 있다. 다니엘의 상황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포로라는 현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니엘서의 순서는 연대기적이지 않다. 첫 여섯 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건들에 개입하셔서 세 이방 왕의 다스림 아래 놓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셨다(21쪽)’고 증언한다. 그러나 나머지 7-12장에서는 천상의 영역으로 끌고 올라가,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니엘서는 논리적 순서로 엮였지만, 역사적 순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궁정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후반에 소개되는 천상의 환상들이 삽입돼 있다.

저자는 다니엘서를 읽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는 묵시 문학으로 읽을 것, 둘째는 예언 문학으로 읽을 것, 나머지는 지혜 문학으로 읽는 방법이다. 결국 서론에서



신비를 엿보다: 다니엘
바바라 롱 라이 | 송동민 역
이레서원 | 120쪽

저자는 다니엘서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다니엘들에게 현재를 해석하는 프레임으로서 다니엘서를 읽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보인 미래와 닫힌 현재라는 긴장이 만들어낸 ‘신비’다.

신비는 보인 미래와 닫힌 현재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저자는 2장 초반부에서 궁정 이야기를 다룬다. 6개의 이야기는 포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즉 하나님은 유대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도 ‘주인’이시다.

저자는 이곳에서 데이비드 발레타의 의견을 빌려와 ‘1-6장은 적대적 통치자의 지배에 맞서는 저항 문학으로 해석될 수 있다(29쪽)’고 말한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하들에 의해 조종되는 왕에게 저항한다. 그들의 고난은 저항의 결과다. 즉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저항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간다.

저항의 결과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공동체는 파괴되지 않는다. 여섯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열방들 가운데 ‘참된 주권자(48쪽)’이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종합된다.

3장은 7장부터 시작되는 천상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후반부는 포로인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궁정적으로 해방되는 모습(50쪽)’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부활과 기업을 받게(51쪽)’ 된다. 삼인칭에서 갑자기 일인칭으로 넘어간다. 삼인칭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그러나 일인칭은 사건을 내재화시키면서 자기 고백적으로 보게 한다. 시점이 변화는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를 유도한다.

1-6장까지의 사건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한다. 반면

7-12장까지의 일인칭 관점은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일인칭은 환상 사건의 배타적 속성을 강조하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함을 강조한다.

후반부의 환상이 갖는 특징은 시간이다. 즉 역사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조종해 가신다. 특히 8장의 환상 속에 보이는 거대한 신상은 정한 때가 있음, 여러 날 이후라는 시간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말한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파멸을 맞게(67쪽)’ 된다.

볼드윈의 지적처럼 ‘다니엘이 기도하고 환상을 본 시기는 아직 그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때(73쪽)’이다. 그는 유배 상태이지만 이미 회복될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소망’이 시작된다.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처음 질문했던 ‘신비’를 다시 물었다. 저자는 이미 성취된 역사도 있지만 아직 ‘깊은 신비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86쪽)’며, 그것을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은 이미 종말을 알고 있지만, 내일과 미래의 이야기는 아직 닫혀 있다. 그 부분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때로는 삼인칭의 관점에서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일인칭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현재에 침투한 종말을 소망 가운데 살아 나가야 한다. 우린 아직도 다니엘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12:8)’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다. 종종 닫힌 현재 때문에 수없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지만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독자들이 다니엘의 경험을 ‘전유(appropriation)’하도록 충고한다. 전유(專有)라는 이 독특한 단어는 ‘도용(盜用)’ 또는 ‘전용(轉用)’의 의미를 가진다. 다니엘의 경험을 객관적 차원에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서라는 텍스트 속에 잠긴 하나님의 신비는 현대 독자들에게 난해한 고대의 그림이다. 그러나 삶으로 재현해 나갈 때, 하나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다니엘서가 지닌 신비와 씨름하고 이를 전유하도록 모든 독자들을 초청한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가인, 라반, 삼손, 압살롬... 실패자들에게서 나를 발견하다

방영민의 서평 책숲산책 (1)



말씀 앞에 서는 용기
한주원 | 이레서원
256쪽

빌닷, 소발을 통해서든 따뜻한 마음이 없는 자의 논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소비적인지 보게 된다.

책은 이렇듯 열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악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주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면들인데,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씨름하고 이겨내야 할 죄악들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는 점이다. 내 안에 숨겨진 약한 본능과 거짓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한 인물을 둘러싼 삶과 배경과 사건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폭로한다. 그것을 통해 바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깃을 여미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저자가 그때의 말씀과 인물과 사건을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말씀을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내기 위해, 그는 다양한 예화를 사용하고 적용한다. 신문 기사, 시와 소설, 영화와 각종 통계 자료 등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접촉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적절한 연결이 되어 말씀을 현실성 있게 들리게 해준다.

세 번째는 책을 통해 성경공부나 인물 설교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강해 설교라 하고 싶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사를 다루며 그가 가진 약점과 결함을 주제 삼아 글을 쓰다 보니, 본문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왜곡되고 틀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주제별 설교나 그룹별 성경공부를 할 때 풍성한 나눔과 교제와 사귀기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실제 챗터마다 토론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있다. 책을 읽은 후 개인의 묵상과 적용도 의미가 있지만, 신뢰하는 공동체가 함께 나눈다면 그 말씀과 적용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칼리성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명품 과일 판매
 Thanksgiving 선물용

아주 맛있는 과일 농장에서 직접 받아 판매합니다. 한인타운내 무료 딜리버리 가능

T.(213)400-4149 **Cash Only**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 발가락

✓ 마디관절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WORD
 말씀카드

전면디자인 5가지와 한영으로 된 성구 350구절의 예쁜 말씀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EVENT 20% OFF
 12월 6일 까지 주문고객!!

150개 ~~\$150~~ \$120
 300개 ~~\$250~~ \$200
 500개 ~~\$350~~ \$280

A형 B형 C형 D형 E형

A-F 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뒷면에 한영성경구절 앞면에 교회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 junimmedia@gmail.com



베다니 마을



베다니 나사로 교회의 지붕에 그려진 그림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3)

가난한 자들의 이웃, 베다니

성 밖의 가난한 자들의 거주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 약간 동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6.5마일쯤 떨어진 베다니를 만난다.

이 작은 마을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루살렘성이 아닌 광야로 향하여 쉬신 곳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 밖에 유하셨다(마21:17, 막11:11)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갈릴리에서 요단 계곡을 타고 여리고를 거쳐 유대 광야를 올라 오면 만나는 예루살렘 주변 첫 동네이기도 하다. 이곳은 나병환자 시몬(마26:6, 막14:3)이 살았던 곳이며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인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 복음서에서는 성 밖에 사랑하는 자들과 머무셨다고 하셨다.(요11:3, 11:5)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도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사는 마을 베다니는 히브리어 '베이트 아니야'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감람산에서 베다니로 가는 길이 쉬웠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빈번한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감람산 뒤편으로 베다니 지역을 가르는 보안 장벽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감람산에서 직접 베다니로 들어갈 수가 없어 세계 문 앞에 있는 팔레스타인 버스 정류장에서 43번 버스를 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가 마알레 아돔빔 유대 정착촌이 보이는 곳에서 우회하여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람산 방문 후 벳파겏을 거쳐 베다니로 가는 코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좀 특별

한 계획을 세워야만 베다니를 방문할 수 있다. 물론 이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은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벳파겏 교회 옆으로 해서 동편으로 산 위를 가로지르는 보안 장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도 아프게 하였다. 어느 날 보안 장벽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보안 장벽 사이에 조그만 통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구멍을 만들어 서커스에도 들어가고 철도길도 지나다니고 극장도 몰래 들어가던 생각이 나서 추억에 잠시 젖어보기도 하였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곳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여리고와 베다니를 거쳐가셨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을 인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그분을 철저히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생활하셨던 것이다.

베다니에 오시면 나사로 집에 자주 묵으셨는데 한번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는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다.(마26:6-16, 막14:3-9, 요12:1-8)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일이었고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행한 일이 기념된다고 하셨다.

여전히 가난한 이스라엘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닌 중간지대 베

다니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나가서 '마알레 아돔빔'이라는 유대인 정착 도시 옆을 통과하여 한참을 돌아야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무덤과 교회

궁색함이 치부 그대로 들어난 베다니에 그래도 예쁜 교회가 있다. 베다니 나사로 교회(Franciscan Church of St. Lazarus)라 이름하는 교회이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약 100m 내려가면 교회를 만난다.

주후 4세기 비잔틴 기독교 황금 시대에 첫 교회가 세워졌지만(교회 앞에서 동시대의 모자이크를 확인할 수 있다) 다 부서져서 1954년 이탈리아 건축가 Barluiz에 의해 동근 지붕과 내부에 비둘기 모자이크 48개의 금도금 접시 장식,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과 마리아의 향유 붓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교회 앞에는 1964년 교황 비오 6세가 다녀간 것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교회 문 옆으로 나와서 위쪽으로 약 100m쯤 올라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 원래는 교회와 무덤이 통하였는데 무슬림들이 중간을 막았기 때문에 후일에 무덤 입구를 따로 만들었다 한다.

나사로 무덤은 4세기 지진에 의

해 무너졌고 십자군 시대에 복원하였지만 1187년 아랍의 살라딘에 의해 파괴되어졌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14세기 무슬림 사원이 나사로 기념 교회와 무덤 사이에 있어서 따로 무덤 입구의 문을 만들었다. 현재도 무슬림 사원이 존재한다. 이 무덤은 상당한 깊이가 있는데 27개의 돌계단을 조심하여 내려가면 무덤에 도달한다.

무덤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고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해 본다.

세월은 흘러

무정한 세월은 흘러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베다니에는 겨자나무가 있다. 무덤에서 교회 사이에 겨자나무가 있고 이 나무 아래서 겨자씨를 파는 아랍 아낙네가 있다. 1달러에 겨자씨를 살 수 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좀 더 내려가면 교회 문 옆문 앞에 나사로의 집이 있다. 자기가 자칭 나사로의 후손이라는 아랍 사람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아래층에 부엌이 있고 위층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는 고대 집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이곳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지만 해도 너무 좋다. 근래에 이 집 주인이 보이지 않아 지키는 젊은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데 얼마 전에 사람들이 하도 오지 않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하여 마음이 아팠다. 필자가 가면 그렇게도 반겨주던 아주 친절 한 나사로의 후예였는데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지만 헌신이 있었고 주님의 눈물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던 베다니가 복음으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좀 더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생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한다.

(계속)



벳파겏 교회의 내부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12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일터에서도 희생하라... 주님께서 ‘페이버’ 주실 것”

《P31》 이어 《페이버》 펴낸 팀하스 하형록 회장 인터뷰

2년만에 이식받음 심장이 나타났 다. 그에게 남은 남은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그런데 하필, 이식받지 못하면 이틀을 넘기 힘든 여성 환자가 옆방에 있다는 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그가 이식 받게 될 심장이 같았다.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선택 손 내밀어 잡을 수가 없었다.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은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아내와 두 딸, 부모님이 미처 알기 전,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가 병실 문을 나가기 직전이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다행히 그녀는 이식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1주일 뒤 호흡근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병원의 많은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리고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병원 내 직원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쓰러진 한 달만에 기적적으로 그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퇴원 후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팀하스(Tim Haas)를 설립했고,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설계회사로 성장시켰다.

팀 하스의 사훈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경영하면서, 미국 동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 하나가 됐다. 잠언 31장? 그렇다. 그는 《P31》의 하형록 회장이다.

2015년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였

던 《P31》 이후, 2년만에 그가 《페이버(청림출판)》로 돌아왔다. 책에서는 두 차례의 심장이식 과정과 그 이후 기업의 성장 과정,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페이버(favor)’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심장을 양보하고 다시 살아난 후 그는 잇따른 행운 또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은혜(grace)나 자비(mercy)가 아닌, 주님의 특별하고도 비밀스러운 축복인 ‘페이버’로 소개하고 있다.

“심장을 양보한 이야기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책에서 공개하셨습니다.”

“5년 전 KBS에 출연했을 때 심장 기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P31》을 쓸 때도 출판사에서 넣을 것을 권유했지만, 자랑 같은 느낌이 들어 망설였습니다. 《P31》은 회사,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책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제가 하나님의 ‘페이버(favor)’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책에도 썼지만, 21년 전 첫 번째 심장을 이식 받기까지 5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때까지 이식을 받지 못하면 평균적으로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심장 환자들의 50% 정도는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오지 않아 이식도 못 받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기계로 조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제게 딱 맞는 좋은 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옆방의 여자는 이틀내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양보했지요. 6년 뒤 두 번째 심장을 받을 때는 의사가 ‘이게 마지막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7년간 살았고, 2년 전 《P31》을 쓴 후 식구들과 하이킹을 갔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끝이 왔구나’ 싶어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심장 혈관이 두 개 막혔다고 했습니다. 심장이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심장을 죽음을 무릅쓰고 양보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이버”란 무엇인가요.



하형록 회장은 “참회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팀하스 제공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나 희생을 드린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려울 때 항상 기도하고 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강조하지만, 구원과 희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희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뭔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내 희생할 수도 있어야지요. 예수님처럼 다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일터에서도 돈과 이익에 대해 ‘못 벌 수 있다’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이익의 절반 정도 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그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짧게는 하루이틀 후에, 길게는 20년 후에라도 필요할 때 배로 주신다는 것이 ‘페이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구원 받는 은혜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 은혜(grace)가 아니라 영어로 ‘페이버(favor)’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것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페이버’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모든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좋은 행동을 했다면, 페이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앞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해도 ‘은혜’에 대해 한국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받은 것이므로, 주로 감사할 때 사용합니다. 대신 ‘페이버’를 쓰지요. 이처럼,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제 실천으로 가야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배우려 하는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책 《페이버》의 내용입니다.”

책에서 하형록 회장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번역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영어에 ‘정(情)’이라는 단어가 없어 ‘사랑’으로 표현하듯, 한국에는 ‘페이버’와 같은 뜻을 가진 마땅한 단어가 없어 ‘은혜 혹은 은총’으로 적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페이버’는 “Hey, do me a favor(이봐, 부탁 좀 하자)”나 “May I ask a favor of you(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등의 경우 사용된다. ‘네 친구인 내 얼굴을 봐서’ 쪽 들어 달라고 부탁할 때나,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모르는 사

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말이다. 율법이나 십계명을 전제로 이뤄지는 심판이나 축복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지만, 이 ‘페이버’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favor)를 입었사오면(출 33:13)’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 곧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선한 결정을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일컫는 말이다.

“회장님처럼 결정적 순간에 이웃을 향해 희생했지만, ‘페이버’ 없이 끝나는 인생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P31》이 나올 수 있었고, 《P31》과 회사 팀 하스를 통해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버’를 받았기에, 친구들도 제게 이야기 합니다. ‘네가 성공한 건 잘 나서도, 능력 있어서도 아니다. 그때 심장이식을 양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영어성경(NIV)은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창 18:3)’ 하고 표현합니다. ‘만약...’ 하는 조건입니다. 페이버는 공짜가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착하게 살 때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때까지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aeu@aeu.edu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영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기회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팀하스에서 설계한 뉴저지 뉴브런스윅 Gateway Transit Village 주차빌딩 ©팀하스 홈페이지

다면, 즉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희생했습니다. 바로왕 때문에 앞길에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냐고 물을 때 '만약에...'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이 있으면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라. 《P31》이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회사에서 희생하라.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이 희생하는 쪽으로 하라. 당장은 손해보지만, 그것 때문에 2-4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도 그러했습니다. 갖은 고생을 겪었지만, 결국 몇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장이식 후 하형록 회장이 1994년 설립한 팀하스(Tim Haahs)는 컴퓨터 한 대로 자신의 집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3개월만에 미국 2위 신용카드 회사가 첫 고객이 됐고 4개월 후 템플 대학병원 주차 빌딩 설계라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우리처럼 작은 회사가 이뤄낸 일이라고는 자랑인 나조차 믿기지가 않았다."

팀하스는 이때부터 승승장구해서 5년간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됐고, 지금은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차 빌딩 설계 회사다. 이런 성공 덕분에 그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종신직인 국립건축과학원 위원이 됐다. 하형록 회장은 이렇듯 기적의 바

람을 타고 수직 성장한 비결에 대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훈을 걸고 출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 《페이버》에는 그가 경험한 '페이버'와 그 바탕이 된 '이웃 사랑', 특히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중시했던 경영 사례들이 가득하다.

- 《페이버》 전에 《P31》로 널리 알려지셨는데요.

"미국에서 《P31》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세계 선교의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신학교에서는 오직 목사와 선교사, 두 부류만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신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괜찮은 신학교들도 경제적 이유로 힘듭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신앙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돼 버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나 신학교에서 '땅끝'을 어디로 여겼습니까? 미국이라면 예전의 한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못 사는 나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땅끝까지 가기 위해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면, 끝은 다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됩니다. 진짜 선교할 곳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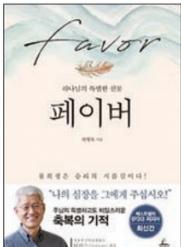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외국으로 선교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처럼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일 선교가 필요한 곳이 한국, 그리고 미국, 유럽 아닐까요? 한국이 기독교를 계속 지탱해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미국처럼, 유럽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미국까지 넘어가 버리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캐나다는 벌써 넘어갔고,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정치가 불안하고 기독교는 힘이 약합니다. 부흥하고 있다지만 남미는 가톨릭이 주류이지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선교에 있어 큰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세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회사를 바꾸고 나아가 이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의 일터가 어디든 《P31》에 나온 것처럼 담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할 순 없으니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책임자 위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희생이 있더라도 깨끗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입니다."

-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목회와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고, 미국 정부 건축 분야 이사로 있게 하셨습니다. 관심 분야는 아니었지만 부르심이 있어 신학교에서도 10년간 이사로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엮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터 선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터 선교사 프로그램은 제가 이사로 있는 신학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BTS)의 기본 과목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일터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사랑의교회에서 10개월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



페이버 | 하형록 청림출판 | 244쪽

다. 1천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5개입니다. 현재 3개 과목이 끝났고, 내년 6월쯤 대규모 졸업식을 통해 파송할 예정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좋지만, 선교사 타이틀을 주고 안수해서 일터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게 될테니까요. 일단 사랑의교회를 파일럿으로 진행한 뒤, 경과를 보고 참여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이 쓴 《페이버》와 《P31》에는 '성경적 비즈니스'의 원리와 사례가 들어있다. 그는 첫 심장이식 전 병원에서 읽었던 잠언 31장을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했다. 특히 31장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는 경영철학을 정립했다. 그는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P31》에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10절) △다 함께 뛰는 회사(17절) △주인이 술 선수범하는 회사(19절) △높은 목적을 둔 회사(23절) △엑스트라 마일(고객이 기대하지 않는 일)을 실천하는 회사(24절)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28-2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30절) 등을 모토로 삼고 있다.

-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요.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P31》로 시작합니다. 일터 선교사란 어떤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P31》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후 선교신학, 구약에서의 선교, 신약에서의 선교 등을 배웁니다. 마지막 과목은 제자훈련을 실시합니다. 1년에 5과목 15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BTS에서 졸업식을 주관하게 되고, 이수자들은 석사학위 진학시 이 5과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만 할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자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혁(reformation)으로 평가받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훗날 학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성령님이 목회자로부터 성도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제자에게, 다음에는 목회자에게 갔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목회자들만 일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만, 사회는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중 300만 명만 일터 선교사로 키워낸다면, 한국 직장인이 2,500만 여명이니 1/10 정도 됩

니다. 십분의 일이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일터 선교사가 되어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비록 직장인이지만 1/10 정도가 된다면 한데 뭉쳐서 반대를 하든 저항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해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25%라고 하지만,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비즈니스 미션이 요즘 대세입니다.

"다른 교회나 교파에서도 일터 사역자들을 키워내려 하시기 때문에, 함께한다면 결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에게 '일터 사역자로서 제대로 해 보라'고 권면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는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선 주어진 명칭이 있을 때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 사회이기도 하니깐요. 한국적 정서를 맞춰 주려면,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집사든 장로든 다 선교사로 임명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5년 전 비즈니스 미션(BaM)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3천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다시 갔더니 9백명으로 줄었습니다. 가르쳐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겁니다. 의지는 있는데, 실천이 약한 부분이지요. 사회에서 일하다 보니 휩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일터 선교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국에선 그냥 '가서 하라'고만 하면 잘 안 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비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터 선교사 양성도 확신돼 미국에 있는 좋은 신학교들을 다 살려내고, 한국 신학교들도 살려내 한국 사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재창시키고, 미국도 그렇게 돼 한국과 미국이 회복된다면 유럽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도 '이웃'이라는 페이버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기 바란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방법을 싹 틔우기 바란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웃 사랑'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땀 흘리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페이버'의 열매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 참회성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주신 '페이버'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이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의 급속한 부흥의 빛과 그림자, 축적의 시간의 상실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 입법화의 쓰나미 앞에
유럽교회처럼 쇠퇴하고 사멸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효하였던
소강석목사가 성대 수술 후의 침묵 속에서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예지력과 날선 위기의식으로 써 내려간
미래 한국교회의 서바이벌을 위한 축적의 전략서!

**2018년 목회를
미래교회 서바이벌로 시작하라!**

새롭게 하소서

| 소강석 지음 |

여기, 뼈가 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토설하며
새로워지기 위해 절규하는 한 사내가 있다.
**눈물범벅된 얼굴로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며 써 내려간
다윗의 절절한 참회의 서사시!**

272면 / 12,000원

296면 / 13,000원



하나님의 인재를 함께 키우는 교육선교사가 지금 되어주십시오



글로벌선진학교 01.

불과 60여 년 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복음화를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장학생으로 선진국학교로 진학시켰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2.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는 지구촌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현지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초청하여 최고의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3.

당장의 배고픔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탁월한 지도자로 키우는 일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04.

어렵고 힘든 나라 복음이 척박한 나라에서 찾아온 이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는 일에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장학 헌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는 어렵고 힘든 나라의 청소년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항공료와 생활비, 모든 수업료를 감면 지원하여 장차 그 나라의 탁월한 인재가 되어 국가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Faith Aim Dream)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참여안내 (Check or Wire Transfer)

- GVCS Foundation Inc. (비영리법인)
- Bank of America / Routing# : 026009593 / Account# : 435034388680
- 3583 Scotland Rd, Scotland, PA 17254 (체크 발송 시 우편 주소)

문의전화 714-742-2674 (미주본부) www.gemgem.org

입학상담 717-496-9487 (GVCS PA) kyungsoo@gemgem.org



후원

